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10월 초 환급금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향후 13년간 규정과 추석 연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들린다. 그만큼 근로소득자에게 휴식이 주는 즐거움이 크다.

이러한 휴식과 더불어 유리 지갑이라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다. 연말정산을 대부분은 연례행사처럼 무심히 지나치는 경향이 있지만, 평소 절세에 신경쓰고 각종 공제항목을 잘 파악해 공제액을 늘린다면 내년 초 늘어난 세금환급액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보탬을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수증만 잘 챙겨도 '목돈' 생긴다

연말정산이란 국가가 세금징수를 편리하게 하고 세수를 평균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징수하고, 다음해 1월에 근로소득자 개인별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즉, 근로소득자는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징수하고, 다음해 1월에 근로소득자 개인별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즉, 근로소득자는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징수하고, 다음해 1월에 연 소득금액에서 경비형식의 공제를 제외한 후 세율을 곱해 최종세금이 도출되면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세금이 많이 징수됐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징수됐으면 그만큼 더 내야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과 관련된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절세형 상품 적극 활용 가족공제 소득 높은 사람에게 집중 시켜야

자금과 같은 특별공제, 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기타소득공제로나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공제와 기타소득공제의 부분에서 공제액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 몇가지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우선 소득 수준별로 연말정산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표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단, 절세와 관련한 금융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어 자금이 묶이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를 물거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단순히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본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평소 영수증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보장성보험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보장성보험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절세용 금융상품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잘 보관해 제출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서류는 끈 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TNV 피아낸셜 클럽 팀장)

자산운용사 '뺏대로 운용'

4년간 약관·법령위반 300건

최근 4년여 간 자산운용사들이 약관·법령 위반 등의 불법 운용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펀드 간 부당 편취 등의 자전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이며 자전거래 규모도 11조원을 넘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5년 자산운용사들의 거래내역(운용기간 2000~2005년)을 검사한 결과 자산운용사들이 2000년 이후 펀드가 특정 종목에 10%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10%룰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23건이었으며 약관·법령 위반 건수는 255건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펀드 간 부당 편취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건수는 총 21건, 규모는 11조4천658억원에 달했다.

자산운용업계 전체의 약관·법령 위반 건수만 볼 때 최근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63.7건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90건, 86건으로 많았으나 2004년 28건으로 줄어든 뒤 2005년 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운용사별로 적발된 건수는 ▲우리CS자산운용 19건 ▲서울자산운용 15건 ▲미래에셋캐프자산운용 12건 ▲CJ자산운용 12건 ▲마이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11건 ▲KB자산운용 11건 등의 순이다.

또 펀드 간 부당 편취 등의 자전거래(수익률 조정 포함) 규모도 ▲KB자산운용 3조2천581억원 ▲CJ자산운용 2조6천864억원 ▲대한투신 1조5143억원 ▲삼성투신운용 8천589억원 ▲한국투신(옛 동원투신 포함) 7천748억원 ▲신한BNP파리바투신 6천997억원 ▲푸르셀 5천62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저소득층은 빚갚는데 '허덕' 고소득층은 노후 대비 저축 저축률 '양극화' 심화

전체 가계의 저축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크게 떨어지는데 반해 고소득층의 저축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 소득계층간 저축률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계층간 저축률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여유가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가계부채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6일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이 하위 20%인 계층의 저축률은 1996년 -1.1%에서 2004년 -21.4%로 떨어졌으나 소득이 상위 20%인 계층의 저축률은 32%에서 33%로 높아졌다.

따라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저축

률 격차는 33.1%포인트에서 54.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또 97년에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고소득가구 가운데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15.5%였으나 2003년에는 이 비중이 37.5%로 높아졌다.

반면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에서 저축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8%에서 8.3%로 떨어졌다.

이처럼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가 확대된 것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불확실한 노후 대비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많은데다 ▲국민연금 등 강제저축 증가로 저소득층의 개인저축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크게 줄어들고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더 큰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 옷' 입은 아시아나항공

역동적인 색동 형상을 꼬리날개 부분에 그려넣은 새 디자인 아시아나항공 1호기(B777)가 26일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착륙, 격납고에 구 디자인 항공기와 함께 서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동체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흰색에 가까운 쿨 그레이(회색톤)를 입히고 아시아나의 색동이미지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새 CI 컬러와 조화시켜 색동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주 '피오레' 1,900세대 목표·순천서 잇달아 분양

목포 모델하우스, 하당 소방서 4거리

대주건설은 목포 옥암지구와 순천 용당동에서 총 1천900여 세대의 '피오레'아파트를 잇달아 분양한다.

목포 옥암 피오레는 832세대의 대단지로 34A형 217세대, 34B형 223세대, 35평형 392세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물량은 전남지역 최초로 '피오레' 브랜드를 채택한 아파트로 분양권 판매 제한이 없으며, 계약금 10%의 무이자 대출로 신 규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지내에는 테마공원 9곳과 주민복지관,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되며, 목포 최초로 신형면 설계가 도입된다. 오토산과 영산호를 끼고 있어 조망권이 뛰어나고 18만평 규모의 수변생태공원과 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청정주거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5분거리에 위치하고, 17개의 초·중·고·대학이 설립될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 호남고속철(2017년), 목포~광양 및 광주~무안간 도로 등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옥암지구 인근인 남양 신도시는 2019년까지 인구 15만명, 440만평 규모로 3단계에 걸쳐 개발되며, 1단계로 오는 2010년

까지 남양 옥암중심권(270만평)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는 목포 하당 소방서 4거리, 제일여고 후문에 위치해 있으며, 27일 오픈한다. 문의 061-2877-999.

이와 함께 대주건설은 순천 용당동에서도 이번주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피오레 아파트 1천55세대 공급에 나서는 등 올해 9천999세대 아파트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의 061-745-6116.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포 옥암지구 피오레 조감도>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비즈맨	센스있는 인터넷 웹디자이너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27	062-511-0933
(주)인터디자인	디자이너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8	062-234-2223
(주)포도애셋 광주지점	2006년 5기 재무상담사 채용	대졸/경력무관	2800~3000	10/30	062-373-7100
포도양주	사진촬영 및 고객관리 정규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62-222-0948
(주)진어소시(에이츠 광주지사)	[광주신세계백화점] 사원 모집 급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0/30	011-1796-4814
(주)한텔	(주)한텔 Set-up 및 정산, 현장관리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30	010-6647-4790
중앙생명	[TM19]분리센터 상담원 200명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2-518-2769
(주)한진기공	기계설계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4년	2200~2400	10/31	011-649-9111
세광기업	광공사 수주업무 보조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31	062-675-9721
로얄OTO	광주영업소 영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32-510-8425
(주)담양온천	[담양리조트]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2	061-380-5114
(주)서울기연	태양광 설비/설계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03	031-436-2030
(주)태상기업	경리,회계관련, 컴퓨터 업무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1/03	062-382-8204
(주)선일모터스	영업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3	062-676-8337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금호그룹 '함께하는 아름다움'

새 CI 역동적 이미지 광고 선행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새 이미지공고를 선보였다. 잔잔한 음악속에 유연한 춤을 보여주는 발레리나와 거칠고 강렬한 느낌의 스트리트 댄스를 연습하는 비보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느끼는 듯 경직된 모습으로 대하지만 이내 몇쩨는 듯한 미소로 화답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이 광고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현재 공연중인 주연배우들(비보이-김현문, 발레리나-유은혜)이 광고모델로 출연, 짧은 층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음식 세계화 나선다

외국인 조리 쉽게 표준·규격화

정부가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26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가이미지위원회 한식분과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한식을 외국인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조리법을 표준화·규격화하고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퓨전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해외에 있는 3천여개 한식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 한식당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외식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파악해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의 현지 TV 등을 통해 한국의 음식에 대해 광고하는 방안도 검토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국음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먹게 되면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문화적 효과가 생기고 한국의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수출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준다"면서 "태국은 지난 2000년부터 자국 음식 세계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직자 10명중 4명

"현 직장 다니면서 다른 일자리 찾아"

구직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불완전 취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 2천784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7.4%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현 직장은 경력을 쌓기 위해 선택했다(28%) ▲현 직장의 기업문화나 근무환경이 맞지 않는다(25.6%) ▲비정규직·임시직이다(15%)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2년(22.6%)이나 3년(19.6%) 정도 후면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응답자의 84.3%는 보수나 자기계발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취업에 대한 생각이 대학교 다닐 때와는 달라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혈세 먹는 군인·공무원 연금

적자보전 4년간 6조원 투입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보전액이 2004~2007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8년 한해 동안 이들 두 기금에 대한 보전액은 모두 2조원을 넘게 된다.

26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3천893억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6천15억원으로 집계돼 두 기금의 보전액을 합하면 5조9천908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 60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적자를 나타냈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은 2001년 5천514억원, 2002년 5천690억원, 2003년 6천313억원, 2004년 6천147억원, 2005년 8천564억원, 2006년 9천261억원 등이었다.

내년에는 9천921억원이 들어가며 2008년에는 1조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인연금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평균수명이 길어지는데다 저급리로 인해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001년부터 시

작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없었고 2003년 548억원, 2004년 1천742억원, 2005년 6천96억원, 2006년 8천452억원 등이었다.

내년에는 9천725억이 투입되며 2008년에는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 내년 7월부터 자격증제"

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그간 기중기 운전기능사가 해왔으나 지난해 신설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져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내년 7월 이전에 '타워크레인 조종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조종할 수 있다.

5t 이상의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